

생산적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소고



김 정 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1. 일상사의 한 생활형태로서의 음주문화

원래 우리들이 '문화'라고 칭할 경우, 그것은 전승되고 창조된 내용으로서, 가치나 사상의 유형으로서, 혹은 인간행동을 좌우하는 상징적 의미체계로서 그리고 인간의 행위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품으로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란 인간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에 의해 개발되고 외부로부터 습득한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체이다.

동시에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까닭에 여러 상이한 문화형태 혹은 양식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음주에 있어서도 각기 상이한 음주문화들이 존재하게 된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음주는 인간들의 일상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제는 사회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음주를 하게 되는가? 아무런 이유없이 결코 음주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행위란 특정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간들은 기쁨 때, 화가 날 때, 우울할때, 죄의식을 느끼고 이 죄의식을 잊기 위해, 피로함을 잊기 위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잊고 싶을 때, 인간들은 대체로 술

■ 目 次 ■

1. 일상사의 한 생활형태로서의 음주문화
2. 음주문화의 역기능적 측면
3. 한국인의 음주형태
4. 생산적 음주문화의 고양을 위한 해결책들

을 마시게 된다고 한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업적위주의 사회원리들은 인간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술속에 자신을 묻었다. 사실 한국사회속에서의 인간관계의 형성, 특히 남성들간의 관계형성은 술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아무리 낮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술좌석이 무르익다 보면 어느새 오랜 지우처럼 서로를 대하게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형태에 있어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알코올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알코올은 어떤 도덕적 진실을 꺼리낌없이 드러내게 하는 축복스러운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은 인간들의 생활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술은 약이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음주는 개인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을 “한잔쯤 마시는 것은 좋다. 하지만 두잔쯤 마시면 품위를 상실하게 되고 석잔쯤 되면 부도덕하게 되고 녀잔쯤 마시면 자멸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정도가 지나치니 화를 부르게 된다는 점이다.

2. 음주문화의 역기능적 측면

하지만 이러한 음주동기들도 개인, 가정,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그 합당함을 인정받게 되고 아무런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되지 않는다.

여러 연구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른 적정량의 음주는 개인의 능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음주로 인한 개인의 자기통제능력을 상실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골치아픈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일상사의 한 생활형태인 음주문화가 개인에게, 사회에게 역기능을 행할 경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전체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역기능은 피상적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개인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폭음과 잦은 음주로 인해 고혈압, 간암, 간경화증, 심장마비, 성기능 장애, 위염 등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병적 현상을 초래하고, 여성의 경우, 불임과 함께 태아손상과 유방암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병적 질환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적 손실에 관계되는 것이고 초기에 발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치료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심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장애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각증세, 치매, 약물복용, 성격파탄, 자살 등은 한 개인에 한정되는 문제를 떠나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고의 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알코올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강간의 52%, 폭행의 약 60%, 살인의 약 50%, 자살의 약 30%, 교통사고의 약 50%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 혹은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에 자식도 그 영향을 받아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혹은 가정으로부터의 이탈과 함께 소위 문제아로 될 확률이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더 높다는 객관적 통계가 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20세 이전부터 음주하기 시작했다고 답한 경우가 약 67%에 달하며, 약 26%는 이미 중,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 단적인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통제를 넘어서는 음주가 많은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음주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음주량의 추세를 보면 북미와 유럽은 70년대에는 감소 추세에서 80년대 이후에는 정체추세이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 IMF 하에서는 알코올의 소비량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루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해야 하는 소위 사회비용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알코올문제로 인하여 치루었던 비용이 1971년에는 31,424,000,000 달러며, 1985년에는 두배 이상이 증액된 70,338,000,000달러이고 1993년에는 99,000,000,000 달러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비용의 증가율은 약 10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절대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7년의 통계에 따르면 6,637,495,000,000 엔에 달하고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더 적은 5,700,000,000 달러에 달한다.

한 개인의 통제를 잃은 음주가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할 경우,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예에서처럼 그 피해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파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사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동서양에 다 해당된다.

우리의 경우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음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하는 경우가 28%,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가 27.6%,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3.7%, 음주로 인해 구속된 경우가 4.3%, 자신의 음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 21.2%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한국성인의 약 32%가 문제성 음주자로 음주로 인해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3. 한국인의 음주형태

한국인의 음주형태는 공동체적인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 즉 온정주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형태는 별로 흔하지 않다. 다시 말해 항상 축하주 혹은 위로주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음주의 횟수와 오고가는 뿌듯한 정 속에서 술잔을 들리게 되고 알코올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한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0회의 음주 중에서 5회이상 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 13%, 3회 내지는 4회정도 취한 경험을 가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14% 그리고 1~2회정도 취한 경험을 가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약 33%에 해당한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은 10회의 음주를 할 경우, 10명 중에서 6명정도는 거의 한 번씩 취한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취한 경험자체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주목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폭행의 약 80%가 음주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폭행은 가정에서의 아내에 대한 폭행, 혹은 타인에 대한 폭행 혹은 친구에 대한 폭행, 부모에 대한 폭행 등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주횟수와 관련하여 '거의 매일' 음

주를 하였다고 대답한 경우가 약 6%,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 음주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4%,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음주를 하였다고 대답한 경우가 약 10%, 일주일에 '1일 내지 2일'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경우가 22%이며, 한달에 '3일 내지 4일'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10%이며, 한달에 '1일 내지 2일' 음주를 하였다고 대답한 경우가 20%로 (한달에 1번 미만은 생략하였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계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성인들의 70% 이상이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음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주차수와 관련하여 2차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가 약 55%에 이른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친구 혹은 사업상의 일 등으로 다른 사람과 음주하였을 경우 반 이상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음주를 하는 형태가 대체로 지배적인 음주형태라고 거의 단정지을 수 있다. 서구사회와 같이 적어도 합리성에 바탕한 개인주의적 가정문화가 자리잡혀 있고 사람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들과 장치들이 사회적으로 굳건하게 자리잡혀 있는 경우 술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가를 잘 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들과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로 시작하여 술로 끝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의 음주문화는 '우리' 라는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 잔을 주고 받고 하는 음주문화도 하나의 독특한 우리의 음주형태라 규정지을 수 있다.

잔을 주고받다보니 흥에 못이겨 '폭탄주' 라는 형태의 음주를 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마시는 알코올의 양도 많게 되고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과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음주시에 잔을 돌린다는 경우가 약 75%라는 하나의 통계

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음주문화에 있어 잔을 주고받는 행위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이 행위를 통해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새긴다.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20대와 30대의 폭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폭음율은 약 45%를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숫자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40대와 50대의 폭음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세대들이 차지하는 폭음비율은 약 34%를 넘어서고 있다.

동시에 음주층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부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미 음주를 한 경험이 있으며 자기 통제기능을 넘어서 음주로 말미암아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들은 제대로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숫자상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적이든 간에 이들이 범죄행위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배적인 음주문화는 '쉬어 마시기', '잔돌리기', 그리고 선택적이지만 거의 필수인 '2차가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음주에 대단히 관용스럽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도 술이 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가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음주시험에 걸렸지만 음주동기가 실적으로 인하여, 부친상을 당해서, 모친상을 당해서, 상사의 부·모친상으로 인해서, 친지의 결혼식이 있어서 등의 여러가지 사유는 음주운전 자체는 나쁘지만 그래도 동기상의 이유로 너그럽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너그러움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배경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지극히 발전된 소위 선진국이라

고 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동기의 음주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상태속에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감정적인 용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지른다든가 혹은 괜히 시비를 걸 경우, 술집주인은 우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권유하든가 혹은 술 취한 손님이 술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릴 경우, 주인은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빠른 시간내에 와서 술취한 손님을 술집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경우, 법은 최대한 이를 억제해야한다는 법치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서도 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릴 경우, 경찰에 신고는 하지만 대체로 술이 취했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대개의 경우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술문화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용은 사회전반적으로 법치국가적 생활양식보다는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바탕한 유교문화적 생활양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4. 생산적 음주문화의 고양을 위한 해결책들

우리가 '생산적' 혹은 '건전한' 음주문화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볼 때 '생산적' 음주형태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가? 에 대해 반문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음주문화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낭비적 예산을 지출해야만 한다고 할 경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고려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의 기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첫째, 통상적인 음주량, 둘째, 음주빈도, 마지막으로 음주시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세가지 기준들에 대해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각 개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러한 세가지 기준들의 틀속에서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술에 대한 각 개인들의 자기통제능력이다.

각 개인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을 마시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부연하면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각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의식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특정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 개인의 건전한 의식도 집단의 관습적 의식과 행위속에 파묻혀 버린다.

어떤 학자의 지적처럼 아무리 한 개인이 도덕적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특정한 집단이 이에 반하는 행위양식을 강요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접어두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심이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여건조성이 극히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위한 정부, 혹은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음주량만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경우, 우리의

경우, 1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8명만이 음주를 하고 있으며, 약 2~3명은 음주를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음주자 중에서 약 6명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1~2명만이 음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건전음주문화의 대책에 있어서도 단순음주자와 문제성음주자를 구분하고 이 구분하에서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나 지방단체는 가격규제, 음주연령, 영업시간, 장소나 광고규제 그리고 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부착함으로써 음주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캠페인이나 포스트 그리고 TV를 통한 광고 등을 통해 음주의 역기능적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시에 민간단체, 학교가 주체가 되어 대학생이나 청소년 그리고 임신여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가차원의 프로그램과 민간차원의 음주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좋은 대책이기는 하나 음주 혹은 과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던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들음으로써 음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술을 마실 경우,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의 행위에 대한 건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단지 여러 프로그램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만을 통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은 형식적인 걸치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TV를 통해 음주로 인한 가정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사건들을 방송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료들간에 음주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직접적·간접적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알코올중독자를 직접 출연시켜 중독자가 된 배경들을 생방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약하면 음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방영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들과 음주형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국가와 민간차원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남녀성인들의 여가를 위한 사회적 공간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우리사회는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과 기관들이 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물론 테니스장, 골프장, 보울링장, 수영장, 극장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도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있는 시설물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간편하게 술집으로 향해 자욱한 연기속에서 술잔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물론 우리와는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선진국들의 경우,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국가가 만든 사회체육시설물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사회복지비의 예산(사회체육시설물들은 이 예산에 다 포함된다)이 전체예산의 약 30%에 해당된다. 여러 다른

선진국들의 사회복지국가의 모델로써 연구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비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6%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인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물들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가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생산적인 놀이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음주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는 최대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증대를 함으로써 성인남녀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지 형식적인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술집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요즘은 IMF여파로 인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IMF가 다시 사라진다고 할 경우, 우리의 음주형태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따라서 주말폭음 혹은 주중폭음, 근무 중의 낮술, 퇴근길 한잔, 집단적인 술권유 등과 같은 것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하에서 삼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서양의 경우 남에게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없고 또한 자신의 주량

만큼만 음주하는 행위가 하나의 생활관습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의식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 이와 같은 음주문화를 생활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생산적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객관적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개인의 실천적 의지이다.

알코올중독자들의 경우도 아무리 사회적 기반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극복하고자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없이는 이 중독현상을 이겨낼 수 없듯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음주형태도 개인들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생산적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음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TV를 통해 알리고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상황 설명들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 하고 둘째, 국가와 민간차원의 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복지 및 예방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남녀성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사회적 공간들을 확충하고, 셋째, 개인들의 합리적 의식변화를 통해 현존하는 음주형태들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개인과 국가, 민간단체들의 비생산적인 음주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실천적 의지의 확립에 앞장서서 일조를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회복지가 될 것이다.

唐詩 감상 / 杜審言의 詩

和晉陵陸丞相早春遊望

벼슬살이 혼자서 떠도는 사람
 첩의 광경 바뀔에 특히 놀란다.
 구름과 놀은 바다의 새벽을 내고
 매화와 버들은 봄 강을 건너 왔다.

맑은 기운은 피꼬리를 재촉하고
 화창한 봄빛은 푸른 마름 굴린다.
 갑자기 옛 가락의 노래 듣나니
 고향 생각에 눈물이 날 듯하다.

獨有宦遊人
 偏驚物候新
 雲霞出海曙
 梅柳渡光春
 淑氣催黃馬
 晴光轉綠蘋
 忽聞歌古調
 歸思欲沾巾